# “화두타파에 정성 다할 때 지혜덕상 드러나”

## 毘盧頂上을 걸어가라

〈비로정상〉

###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有相有求俱是妄(유상유구구시망)이요
無形無見墮偏枯(무형무견타편고)로다.
堂堂密密何曾間(당당밀밀하증간)이리오
一道寒光爍太虛(일도한광삭태허)로다.

상이 있고 구함이 있으면
모두가 망령된 것이요
무형과 무견은 치우친 소견에 떨어짐이로다.
당당하고 밀밀하니 어찌 간격이 있으리오.
한줄기 찬 빛이 큰 허공에 빛나도다.

하안거를 결제하는 제방의 대중이여!

유(有)에 집착하고 무(無)에 집착하는 모두가 사견을 이루는 것이니, 유무에 떨어지지 않아야만 한 맛으로 모두가 항상 나타날 것이다.

옳은 법과 그른 법이 있으니
하나는 상(常)이요, 하나는 단(斷)이다.
단과 상이 비록 다르나
병이 되는 것은 모두 같다.
주먹을 펴면 손바닥이 되니,
뜬구름이 흩어지면 하늘은 모두 푸르다.

제방의 수행자들이 산문 출입을 삼가며 하안거를 결제함은 고불(古佛)께서 권장하신 법도이다.



대중이 모여 결계하고 화합해서 정진하는 일은 불종(佛種)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일이며, 청정승가가 길이 유지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제천이 환희하고 호법신장이 찬탄하며, 신심 있는 단월이 정성을 다하는 것이니, 이 인연을 통해 큰 일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화두타파의 일념으로 힘써 정진할 때 모든 결박이 분명하게 풀어지는 징험이 있게 될 것이다.

천 길 벼랑에서 나뭇가지를 잡고 있다면 이는 기특한 이가 아니니, 벼랑에서 손을 놓아야 비로소 장부라 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시비와 증애를 내려놓고 오직 화두타파를 위해 정성을 다할 때 홀연히 본래 구족한 지혜덕상이 드러날 것이다.

그대 엉킨 실타래를 풀고자 하는가?

무념지(無念智)의 한칼로 문득 잘라냄이 쉬운 방법이로다.

終日忙忙(종일망망)에
那事無妨(나사무방)이라
不求解脫(불구해탈)하고
不樂天堂(불악천당)이로다.
但能一念歸無念(단능일념귀무념)하면
高步毘盧頂上行(고보비로정상행)하리라.

종일토록 바쁘고 바쁘나
어느 일에도 방해되지 않도다.
해탈을 구하지 않고 천당을 즐기지 않도다.
다만 한 생각 무념으로 돌아가면
높이 비로정상을 걸어가리라.

## 산마루에 구름은 한가히 떠 있다

###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진제 스님

三界無法 法求何處
四大本空 佛依何住
삼계에는 진리의 법이 없거늘
어느 곳에서 법을 구할 것이며
사대가 본래 공하거늘
부처는 어디를 의지하여 머물 것인고.



여기에서 분명히 전신자재(轉身自在)할 것 같으면, 모든 부처님과 역대 도인으로 더불어 미래제(未來際)가 다하도록 부처님 국토에서 안온락(安穩樂)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산문(山門)을 폐쇄(閉鎖)하고 모든 반연(攀緣)을 끊고 구순안거(九旬安居)에 들어가는 것은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기 위함이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 일을 해결하려고 왕궁 부귀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출가(出家)하여 수도(修道)하셨고, 역대(歷代)의 모든 도인 스님들께서도 이 일을 밝히기 위해 출가 수도하셨다.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온 것이지 달리 다른 일이 없다. 만약 다른 일이 있다고 하는 이가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미래제(未來際)가 다하도록 만반(萬般) 고통에서 헤어날 기약이 없는 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고 죽는 이 고통의 굴레에서 영구히 벗어나 세세생생(世世生生) 열반(涅槃)의 낙을 누릴 수가 있느냐? 부처님 경서(經書)에는 팔만사천 길이 펼쳐져 있지만 다 바른 길이 아니다.

오직 부처님의 최상승법(最上乘法)인 이 선법(禪法)을 통해서, 인인개개인(人人箇箇人)이 각자 자신의 성품을 바로 볼 때라야만 가능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참선수행을 하는데도 어째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가?

이 참선법은 화두일념이 지속된다면 깨달음이 저절로 오게 되어 있다. 그런데 사람이 과거 생에 지어온 무수 반연(攀緣)과 습기(習氣)로 인하여 온갖 기멸심(起滅心)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고로 깨달음이 오지 않는 것이다.

나고 죽는 괴로움에서 영구히 벗어나고자 한다면, 이번 생(生)은 태어나지 않은 셈치고, 오로지 화두참구에만 마음을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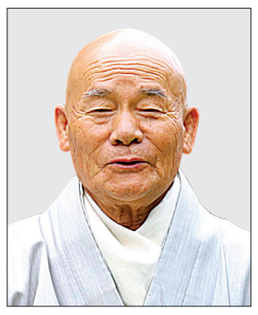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화두를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가나오나, 일체처 일체시에 챙기고 의심하기를 하루에도 천번 만번 반복해서 흐르는 물과 같이 끊어짐이 없도록 혼신(渾身)의 노력을 다해 참구(參究)해야 함이라.

이렇게 일념(一念)이 되도록 노력하다보면, 문득 참의심이 돈발(頓發)하여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홀연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화두가 해결되어 불조(佛祖)의 백천공안(百千公安)을 한 꼬챙이에 꿰어 버리게 됨이니, 그러면 누가 어떤 물음을 던지더라도 석화전광(石火電光)으로 척척 바른 답을 내놓게 되고 제불제조(諸佛諸祖)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살림살이를 수용하게 됨이로다.

雲在嶺上閑不撤
流水澗下太忙生
산마루에 구름은 한가히 떠 있는데
개울 아래 흐르는 물은 유달리도 바쁘더라.

## 세상 만물이 가피요, 부처님 대광명이다

###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달하 스님



계절이 여왕 신록은 안정이 되고 망상이 끝난 별무리 웅장한 대종소리 출렁이는 법계성 알 수 없는 불가사의 이~뭘까? ‘숨을 쉰다.’ 이 한 법이다. 소리 없는 숨길, 이~뭘까 한복판이다. 숨길이 잣대요, 척도다. 360각 영(0)의 바람 頭頭가 산 바람이다. 是大神呪 是大明呪 이 웅장한 한 덩어리 알 수 없는 바람 존재가 지수화풍이다. 來往屈伸이 바람이다.

360각은 각이 없다. 반복왕한 이글이글 끝없이 돌아가는 생명의 바람 찌꺼기가 남지 않는 흔적이 없는 바람 일체를 살게 하는 바람 생각 전의 바람 부처님 바람 반가부좌는 원활한 영(0)의 자세가 아니다. 뿔각이 남아있으면 이리저리 걸려 미세한 호흡이 어렵다. 고집에 걸리고 탈이 많고 막히는 데가 많다. 텅텅 비어 걸릴 일없는 영(0)의 바람. 결가부좌는 잠이 퍼부을 때도 뒤로 넘어지지 않는다.

용맹지와 계합되는 성불자세 머리와 발바닥에 시원하게 피를 통하게 하는 자세 미세혈관이 원활해지고 탄력이 붙는 자세 잠깐잠깐 익히다 보면 결국 내 자세가 된다.

바르게 살자. 기본 틀이다. 바르게, 기본, 이~뭘까? 모두 첫 단추다. 천하만사가 기본 틀에서 출발이다. 첫 단추가 바르면 끝이 좋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심장은 양심이다.

이뭘까?는 틀 이전이다. 폭 빠져 한 덩어리가 되면 休去歇去가 된다. 여유가 오고 휴식이 온다. 한밤중에도 맥박은 홀로 뛰고 있다. 생각 전에 숨을 쉬고 있다. 至心의 바람 산하대지가 녹아진 바람 360각의 바람에는 거친 것이 없다. 뿔각이 없고 주장과 기준과 생각 훨씬 전에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中道 바람, 생기덩어리 그때그때 시원시원 저절로 숨 쉬어지는 바람무시무종 시작도 끝도 없는 숨길 바람 그 한복판 中道, 그때그때 맞게가 中道다.

살아있다. 숨 쉬고 있다. 시원시원 숨길이 터져 숨이 쉬어지고 있나? ‘갓 없는 허공에 覺所顯發~에’ 라고 토를 붙이다가 숨길이 막혀신장의 철퇴를 맞았다. 뿔각의 바람으로는 대적할 수 없는 법문이다. ‘갓 없는 허공이 大覺의 顯發이다~이’ 라고 토를 붙이니 바람길이 툭 터져 산하대지가 춤을 춘다. 호흡이 빽빽하면 시원시원 숨이 잘 쉬어지는 쪽으로 얼른 돌아와야 산다. 붙들려 있으면 같이 망한다.숨이 제대로 쉬어지고 있나? 만사에 이 잣대를 쓰면 잘못될 일이 없다.

종소리가 반이라도 이뭘까?에 얹으면 360 영(0)의 바람이 된다.이뭘까?가 돌아가면 일체가 부처님이요, 일체가 달마야중이다. 무장해제가 되고 싶어 끝파도를 걷는다. 대종소리 둘러 꺼져 洞天바람이 시원하고 억겁업장이 맑은 바람이라 외마디 ‘마하’ 라고 감탄한다. 頭頭가 영(0)의 숨길, 법계를 이뭘까?로 돌아오게 해준다.

百家計巧를 다 써도 마지막 이르는 곳은 한 무더기 마른 뼈뿐이다. 고양이가 쥐 잡듯 心眼이 움직이지 않네. 닭이 알을 품듯 더운 기운이 상속하네. 경허스님 법문이다.

空山風雨多 花落無人掃
靑天一雁沒 碧海三峯出
공산에 바람이요.
꽃떨어져 쓸 사람 없네.
맑은 하늘에 한 기러기 빠졌나.
푸른 바다에 삼봉이 솟아있네.
이~뭘까?

## 노조가 벽을 향해 돌아앉다

###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노조보운(魯祖寶雲)선사는 평소에 납자가 찾아오기만 하면 얼른 벽을 향해 돌아앉았습니다.

어떤 납자가 조산본적(曹山本寂)선사에게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산선사는 손으로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노조면벽(魯祖面壁) 공안에 대하여 선가(禪家)에서 이러쿵저러쿵하며 많은 문답이 오고 갔습니다. 달마대사의 구년면벽 이후에 한동안 뜸하더니 노조선사의 면벽이 등장하자 선문의 많은 선지식이 ‘달마면벽’ 까지 들먹이며 이런저런 자기 살림살이를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달마의 9년 면벽과 노조가 벽을 향해 돌아앉은 것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하며 또 다른 시시비비를 다투었습니다.

노조의 속마음을 제대로 아는 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귀신굴속에서 어림짐작으로 이런저런 말을 내뱉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기야 계교(計較)와 사량(思量)으로 ‘안다’ 라고 하여도 노조는 벽을 향했을 것이고 ‘알지 못한다.’ 고 하여도 노조는 벽을 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담담하여 아무 맛도 없는 가운데 또 맛이 있는 것이니 이미 사량 분별을 넘어 섰기 때문입니다.

달마의 면벽과 노조의 면벽은 면벽 그대로가 법문입니다. 다시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부처와 중생이 나누어지기 전의 소식을 들어낸 것입니다.

어떤 존숙(尊宿)에게 납자가 물었습니다.

“조사가 벽을 향해 9년 동안 앉았던 것은 이 뜻을 아는 이를 찾기 위한 것입니까?”

이에 존숙이 말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알고 있다면 장차 무쇠방망이를 얻어맞을 날이 있을 것이다.”

또 어떤 노숙(老宿)에게 납자가 물었습니다.

“조사가 9년 동안 벽을 향해 앉은 것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 아니리요?”

이에 존숙이 말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알고 있다면 다시 짚신 살 돈을 마련하여 30년 동안 더 행각해야 하리라.”

길고 길었던 코로나도 이제는 한풀 꺾인 듯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이제 다시금 본래 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일상의 회복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본성의 회복입니다.

총림 좋은 도량에서 애써 정진해서 공안을 타파하도록 합시다. 그러할 때 달마와 노조가 면벽한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빈지단(人貧知短)이요.
마수모장(馬瘦毛長)이라.
부혐천구소(富嫌千口少)요.
빈한일신다(貧恨一身多)니라.

사람이 가난하니 지혜가 짧고,
말이 여의니 털이 길 구나.
부유하면 천 명 식구도 부족하고,
가난하면 한 몸도 많도다.

## 언구에 의문 품고 계속 참구하라

###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



對坐不相見
光影照驢年
靜坐絕纖塵
虛空不通線

마주 앉아 있어도 서로 보지 않으니
빛이나 그림자는 나귀 해를 비추네.
고요히 앉았으니 먼지조차 사라지고
허공에는 실낱조차 통하지도 않는구나.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땅을 짚고 일어나야하니, 땅을 떠나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미혹하여 온갖 번뇌를 일으키는 이는 중생이며, 자기 마음을 깨달아 끝없이 미묘한 작용을 일으키는 분이 부처입니다. 미혹과 깨달음이 비록 다르지만, 그 요지는 각자의 마음에서 말미암게 되니, 깨달은 부처가 되려면 이 마음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마음을 깨달아 부처를 이루려면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으니 이를 삼학(三學)이라 합니다.

삼학은 계율(戒律)과 선정(禪定)과 지혜(智慧)입니다. 계(戒)는 삼업을 맑게 가지고, 정(定)은 산란함을 없애고 안정하는 것이며, 혜(慧)는 모든 법의 실상이 공한 줄을 깨닫고 그것이 연기하는 이치를 바르게 살피는 것으로, 수행자들은 반드시 이를 배워야 합니다.

안거 동안에 보름마다 설계 포살하는 것은 바로 계정혜 삼학과 육바라밀과 팔정도(八正道)를 원만히 수행(圓修)하는 것입니다.

이 팔정도를 원만히 수행하는 지름길이 바로 간화선이라 합니다. 팔만사천의 방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사(祖師)들께서 자기 방식대로 간명직절하게 말씀하신 것을 엄정하게 정리해둔 것을 공안(公案)이라 합니다. 그 공안 가운데 하나를 결택하여 그 설화(說話)의 진정한 뜻, 즉 화두(話頭)를 몰라서 의심하고 의심하며 참구하는 것이 간화선입니다.

수십 년이 걸려도 다 못 읽을 대장경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을 제대로 소화시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진정한 장부라면 뜻을 내어 도전해 볼 일입니다.

모든 학문(學問)은 깊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학문은 배울 학(學), 물을 문(問)입니다. 남에게서 배운 것을 아무런 의심이나 의문 없이 맹종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배운 것에 대해 의심하고 그 의문이 풀려야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이 생기니, 그것이 바로 학문하는 자세입니다.

불조에 대한 믿음을 지면서도, 그 분들의 말씀에 이해되지 않는 언구(言句)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계속 참구해야 합니다.

간화선이란 학문하는 자세의 극치입니다. 수행하는 이가 그저 혼침과 산란에 빠져 멍 때리고 단정히 앉아있는 것만으로 안거기간을 보낸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대중들은 이번 안거 동안 한국 간화선의 본고장인 이곳 송광사에서 강원 율원에서 간경(經)하고 선원에서 간화(話)하면서 열심히 정진하여 불조의 진실한 뜻(眞實意)을 깨달아 모두가 바른 안목을 갖춘 대장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면 관계상 법어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